



5면

맛과 멋의 향연 '전주비빔밥축제' 개막

전주매일

2022년 10월 7일 금요일 (음 9월 12일) 제311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 성공스토리, 도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

김관영 도지사 취임 100일 맞아

▶ 관련기사 16면

전북경제를 되살리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시작한 민선8기 김관영 도정이 취임 100일을 기념해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그동안의 성과와 자신의 소회를 밝혔다.

김관영 지사는 6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민선8기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0일간 우리는 전북의 미래 4년을 책임질 도정을 설계했고, 우리가 거둔 성과는 전북의 도약과 상승을 뒷받침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100일 혼신의 힘을 다해 뛰었다며, “변화를 향한 도민의 열망은 조금씩 변화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민생·혁신·실용 3대 핵심 원칙에 방점을 두고 도정을 운영했으며, 민생야말로 전북도정의 시작이고 끝임을 보여드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폭염 및 태풍에는 선제적 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계획 수립 등 신속하게 대응했으며, 지난 9월에는 쌀재고 과잉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쌀값의 안정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대정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우리농업의 근간인 쌀농사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역정치권과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취임초 288명의 팀장급 사무관으로부터 받은 업무보고와 벤치마킹 이



김관영 도지사가 6일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민선 8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그동안의 성과, 전북 도약 뒷받침하는 밑거름” 소회

“민생제일주의 각오로 실질적 해법 추구” 각오 밝혀

디어 발표는 공식사회의 역동성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제출된 아이디어 자체가 도정혁신의 자산이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이라는 도정비전 실현을 위해 △전북도민경제 부흥 △농생명 산업 수도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 △새만금 도약·균형발전 △도민 행복·희망교육 등 5대 목표와 핵심전

략을 설정하고 세부과제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는 민선8기 100일 도정 대표 성과를 정리하여 발표했다. 먼저, 대규모 국가 사업 4연속 유치

라는 성공의 역사를 써냈다. 9천억원 규모의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사업센터’를 유치해 미래의 최첨단 교통수단을 전북이 설계하고 선도할 수 있게 됐으며, 청소년들의 건강

한 삶의 터전을 선사하기 위한 국립청소년다목적센터를 유치했다.

또 군산항 제2준설로 투기장 건설사업의 예타 통과로 20년 동안 진척되지 못했던 사업의 결실을 봐 전북의 유일한 국제교역 창구인 군산항이 더 넓어지고, 더 많은 물동량이 오갈 수 있게 됐다.

특히,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김관영 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했던 인구 10% 범위 내 이민 비자 추천 권한을 광역지자체에게 부여해 직접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새로운 이민과 다문화 시대 흐름에 맞춰 전북에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한다.

이로써 전북 경제 부흥의 4번의 모멘텀이 100일 동안 만들어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세일즈도지사로서 기업유치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경제도지사로서 전북경제의 업그레이드를 준비했다.

전북 김제에 신설되는 (주)두산의 전북투자는 김관영 도지사가 공약했던 5개 대기업 계열사 유치의 출발점을 끊었다. 또한, 민선 8기 출범 이후 총 6건, 2072억원의 새만금산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김관영 지사는 취임 일주일만에 1조 2,243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등 민생위기 극복 비상대책을 마련하여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한 모멘텀을 확보했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업경영의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을 위해 농기계용 면세유 상승분의 50%인 132억원을 긴급 지원했고, 비료도 가격 상승분의 80%인 588억원을 지원했다.

이밖에도 김 지사는 KDX산업은행과 의 창업, 벤처 활성화를 위한 투자 펀드 조성,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 IA 출장을 계기로 1천만달러 수출 계약 성사, 전북교육청과 지역 대학간의 ‘도·교육청-대학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협약’, 여·야 협치를 보여주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각각 대표팀’ 등 100일의 기간동안 성과를 내 보였다.

김 지사는 민선8기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조직개편안을 지난달 30일 도의회 본회의에 통과돼 공모·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민선8기 조직개편은 기업유치, 교육협력 등을 통해 전북경제

를 살리기 위한 혁신적 도정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도지사는 “앞으로의 다짐을 통해 향후 도정운영방향과 함께 각오를 밝혔다.

김 지사는 “도정 주요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관영 도정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민생제일주의 각오로 전북의 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위해 이념과 진영을 넘어 실질적인 해법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북의 기업인에게 “획기적인 투자환경개선과 규제타파로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어려운 여건에도 묵묵히 기업을 지키고, 우리 경제에 헌신하시는 기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도민들과 함께 만든 로드맵과 성과를 바탕으로 비바람을 막아내는 버팀목, 희망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의 역할을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북에서부터 대한민국의 변화와 성공스토리를 만들어내겠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것이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도정의 혁신, 도민의 협력, 전북의 자신감이 어우러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도민들에게 변함없이 함께 해주길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연휴 관계로 11일까지 신문 쉽니다.

현행 2국, 이젠 3국 체제로 확대

도교육청 조직개편 추진... '정책국' 신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현행 2국 체제를 3국 체제로 늘리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교육국 행정국에서 새로이 정책국이 신설된다.

기존 2국 13과 52담당에서 3국 18과 64담당으로 바뀌는 것이다. 1국 5과가 늘어난 셈이다.

이는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서거석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로, 과·팀이 늘어나

면 업무대응능력이 빨라진다는 것이다. 특히 비효율적인 업무는 개선 또는 폐지해서 업무량을 조정하고, 나아가 도교육청의 전체 인원을 10% 정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의 공무원 인원 감축안에 따라 분청 인원을 줄여야 하는 도교육청의 입장에서 관리되는 늘고 실제 일할 수 있는 6~7급 공무원이 줄어드는 비효율적인 조직개편(안)

에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이는 분청 조직의 슬림화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서 교육감의 의지와도 맞지 않는 것이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기능 중심에서 대상중심으로의 전문성 강화

에 역점을 뒀다. 학교교육과를 유치 등 특수교육과와 중등교육과로 분리하고, 공·사립학교의 균형적 지원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회팀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안전·노사의 전담부서가 신설된다. 또 한시적 기구지만 그린스마트기대학교추진단이 운영된다. 지속가능한 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미래교육 기능이 강화된다. 이

는 수업혁신 및 미래교육 연구 개발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기능이 조정되는 것이다.

한편, 대변인실을 교육감 직속으로 뒤 공보·홍보 기능을 강화시켰다. 이는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언론과의 유기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서거석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번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은 2023년 3월 1일자로 시행된다. /정은성기자

**진짜 재밌는데
진안올거야?**

10.7 (수) 진안고원시장
10.8~10 (목) 마이산 북부
전북 진안군 진안읍 마이산로 160

2022 JINAN RED GINSENG FESTIVAL

온가족이 함께하는 다양한 어린이공연
어린이뮤지컬 구름빵, 버블쇼, 버블쇼, 매직쇼 등

놓칠 수 없는 진안홍삼축제만의 이색프로그램
진안홍삼킹덤 [뉴시링(홍삼뉴시), 힐링링, 버블링(비빔방울놀이), 호미링(오래놀이), 약기링]
홍삼노래자랑,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줄다리기대회, 전국 홍삼팔씨름대회

10.8 (토) 19:00 백세인생, 천년기운 콘서트 김완선 서지오 최성수	10.8 (토) 15:30 청소년문화제 경서예지
10.9 (일) 17:00 진안고원 트로트 페스티벌 홍진영 조항조 현숙 김용임 신유 조승구, 박상철, 금잔디, 요요미, 하유비, 윤서령, 이도진	
10.10 (월) 13:00 진안향우회 만남의 날 우연이 레이디티 현숙, 안연진, 김미경, 김동주, 마스카리듀오, 김민석, 서민선, 이경선, 이조아, 전주팔씨름5인조 밴드	10.10 (월) 17:00 홍삼노래자랑 홍경민 김혜연

진안고원 최우수 축제
2020~2023 문화관광축제
주 관: 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회
문의처: 063)430-2391~3
www.jinan.go.kr/festival